

50세 이상 신중년층 일자리 창출 나선다

경력·전문성 활용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인건비·사업비 지원 광주시 일자리사업 14일까지, 사회공헌 8일까지 제안서 접수

광주시가 만 50세 이상 퇴직한 전문인력의 재취업과 사회공헌을 위한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들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일자리 사업이나 사회공헌활동을 발굴·제안하면 이에 대해 인건비,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3일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공모를 오는 14일까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오는 8일까지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신중년은 50세 이상을 말한다. 기업 퇴직자, 기술자, 과거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 취지로 하고 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 참여자의 인건비 및 관리비·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수행기관은 비영리법인·단체, (예비)사회적기업, 공공기관, 행정기관 등 영

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관이어야 가능하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약 1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안서는 14일까지 접수한다. 지역 내 기업 경영·인사 경험이 있는 퇴직인력을 지자체 출연 공공기관에서 채용해 청년 창업기업 대상 멘토링을 실시하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퇴직인력을 지역 내 사회복지관에서 채용해 지역 독거노인 대상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방안 등이 주요 사례다. 다만 경력 및 전문성과 무관한 단순 노동활동 위주의 일자리 사업, 상시적인 각종 센터 운영지원 및 공공시설 물 운영·관리 사업 등은 제외된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은 50세 이상 퇴직 전문인력이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해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5억원으로, 오는 8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 이 사업을 통해 32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했거나 자영업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폐업한 50대 이상 가장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며 "신중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제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북구합창단 신규단원 15명 24일까지 모집

광주시 북구합창단이 신규단원을 모집한다.

북구는 "오는 24일까지 구민에게 아름다운 음악으로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북구합창단에서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 낼 신규단원 15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00년 6월 창단한 '북구합창단'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건전한 여가생활 기회 제공을 위해 주부들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까지 60명의 단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원자격은 현재 북구에 주소지가 있는 20세~59세 이하의 여성으로, 주 2회(매주 화·금요일 오전 10시~낮 12시) 정기연습과 각종 공연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모집분야는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파트이다.

신청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를 다운받아 북구청 문화관광과로 우편 및 방문접수(주말·공휴일 제외)하거나 팩스(062-510-1575) 또는 이메일(seul1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실기심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남도향토음식박물관 3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심사는 지정곡인 '님이 오시는지' (김규환 작곡), '고향의 노래' (이수인 작곡), '보리밭' (윤용하 작곡) 중 본인이 원하는 1곡을 선택해 부르고 전형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문화관광과(062-410-6618)로 문의하면 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서민금융지원센터서 새해 첫 업무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2일 북구 양산동 북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는 것으로 2019년 첫 업무를 시작했다. 문 청장은 이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금융복지 지원시스템을 통해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외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헌장 방면에 나섰다.

서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하세요"

바우처 방식 월 1만500원 지원 11~18세 기초수급자 등 대상

광주시 서구는 여성청소년 건강을 위해 위생용품을 지원키로 하고 접수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6년부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는 1400여명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이 현물로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편의를 위해 바우처 방식으로 월 1만500원씩 연간 12만6000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서구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자중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이다.

한번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없을 경우 재신청없이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www.bokjiro.go.kr) 또는 북지포털을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신청한 여성청소년들은 국가통합이용권(바우처) 카드인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국민행복카드 가맹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청은 지난 2일부터 시작했으며 오는 12월 15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또는 서구 교육지원과(062-360-7192)로 문의하면 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동구, 도시재생 리노베이션

아카데미 수강생 14일까지 모집

광주시 동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도시재생 리노베이션 아카데미(심화과정)' 수강생을 14일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5주간(매주 목·금, 오후 2시~6시) 푸르마을공동체센터에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총 30명이며 주거재생팀(동명동), 청년창업팀(조선대 캠퍼스타운), 상권활성화팀(인쇄의 거리) 등 3개 팀으로 나눠 팀별 워크숍, 전문가 특강, 선진지 견학 등을 진행한다. 동구청 홈페이지(donggu.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오는 14일까지 이메일(danielsim@korea.kr) 또는 팩스(062-608-8977)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늘 열린 마음으로 직원들의 어머니 되겠다"

남구 첫 여성 부구청장 황인숙



1995년 광주시 남구가 개칭한 이래 24년만에 첫 여성 부구청장이 취임했다.

황인숙 남구 부구청장은 지난 2일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황 부구청장은 지난 1983년 강진군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뒤 광주시 등에서 다년간 활동해 온 복지 및 여성분야 전문가다.

황 부구청장은 "젊고 과감한 추진력을 갖고 있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게 돼 기대와 설렘이 크다"면서 "역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발전에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공직자들

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구청 직원들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겠다"며 "구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구청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부구청장은 광주여성발전센터소장을 비롯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복지건강국장을 역임했으며, 광주 가정법원 시민사법 참여단 및 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더불어 잘 사는 '행복 북구' 만들기에 최선"

이상배 북구 부구청장 취임



"항상 기본 마음으로 출근이 기다려지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배(49) 북구 부구청장은 지난 2일 취임식에서 친근한 조지 분위기를 강조했다.

이 부구청장은 "일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며 "제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고 북구 공직자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사는 행복 북구'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이 부구청장은 업무에 대한 추진력이 뛰어나고 행정에 있어 새로운 시도를 좋아하는 도전적인 성향으로 알려졌다.

나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전남대 건

축공학과·전남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이 부구청장은 1998년 제2회 지방기술고시에 합격하며 공직에 입문했다.

그동안 도시철도건설, 도시디자인, 하계U대회 조직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또 광주 산업전략본부장을 역임하며 에너지밸리산단 착공,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사업, 광주형 가전제품 완제품 생산지원체계 구축에 힘썼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힘 쓸 것"

이정삼 광산구 부구청장 취임



"구청 목표인 '내 삶이 행복한 매력, 활력, 품격 광산'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습니다"

신임 이정삼(54) 광산구 부구청장이 지난 2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부구청장은 취임식에서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며 구 의회와도 상호협력하면서 지역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구청장은 또 광주시 면적의 45%를 차지하고, 42만 인구의 평균 나이가 36.4세인 젊은 도시 광산구의 발전 잠재력을 강조했다.

이어 "한국정신의 배움터인 월봉서원과 용아 박용철, 국장 임방울 선생을 날

은 문화예술도시, 도농복합도시, 다문화도시로서의 장점을 살려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부구청장은 "광주시와의 가교 역할에도 충실하겠다"며 광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했다.

이 부구청장은 정광고등학교와 전남대를 졸업하고 지방고시에 합격, 광주시 북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광주시 기후대응과장과 환경생태국장을 역임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도로접합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지분, 500평씩 매매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8500만원(일시불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